

# 성도의 벗 9

1976

기도에 관한 특집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교리와 성약 112:1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6년 9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2권 제9호  
통권 134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 성도의 빛

1976년 9월호

## 목 차

### 이야기 및 기사 페이지

1. 대관장단 메시지: 기도는 열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5.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받음  
제이 엠 토드 엔사인 편집부장
7. 주님께서 기도를 제정하신 이유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21. 기도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  
트루만 지 맛슨
26. 물론 일지 제인 피 코베이,  
프랭크 아이들로트, 머나 베후닌
28. 최상의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  
제너스 알 캐논

### 어린이 페이지

13. 십일조를 바치는 행복한 사람  
앨리스 스트래튼
15. 심심풀이
16. 새벽의 섬 조운 앤더 무어 글, 그림.
19. 영원한 친구

© 1976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사람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완전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파이삼서 12:48)

온전하신 아버지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 온전함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분의 인도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 전세의 집을 떠나 이 세상에 와야 했습니다.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동안 장막이 우리의 영안을 가려 전세에 대한 우리

대관장단 메시지

# 기도는 열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우리는 완전케 이르고자 하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아버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양떼와 가족과 왕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의 기억은 잠시 잊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주시어 선과 악의 세력 가운데서 신앙으로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아브라함 3:25)다 행하여 우리가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첫번째 가르침은 기도였습니다. (모세 5:5 참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항상 기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눅 18:1)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니삼 18:19)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조직되기 2년 전에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중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10:5)

그리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가 너희를 정복하여 너희 처소에서 너희를 옮겨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교리와 성약 93:49)

야렛의 동생에게 있었던 일은 기도하라는 계명에 순종치 않은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야렛의 이주민을 바벨탑에서 바닷가로 이끌어 내시어 “그 바닷가 천막에서 사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사년이 거의 끝날 무렵 주가 다시 야렛의 동생에게로 오셔서 구름 가운데 서시어 무려 세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야렛의 동생을 꾸짖

으시니, 이는 저가 주의 이름을 일컬어 간구하기를 잊었던 까닭이라. “이에 야렛의 동생은 저가 범한 행악을 회개하고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주가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형제들과 저들의 죄를 각각 용서하려니와 다시는 죄 짓지 말지니, 나의 영이 항상 인간들과 함께 하지 않는 줄을 너희가 기억할 지니라. 너희가 죄를 범하여 마침내 죄로 무르익게 될진대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리도다(이더 2:13-15)

그가 범한 죄는 기도를 소홀히 한 죄였습니다.

앞서 인용한 성구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립보서 4:6)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 능하시니 너희를 구하실 분이요.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니삼 18:21)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 원수의 권세를 막아 주시도록 기도하며,

“모든 의의 원수,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간구하라.

“수확이 풍성하도록 너희 들에 있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너희 끝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앨마서 34:18, 20-24, 26-27)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도 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도 하며 회중 앞에서도 하고 홀로도 기도하라.”(교리와 성약 19:28)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땅 위에 퍼져 그 주민이 받아 들일 수 있게 하라. 또 인자가 밝은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올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여 이 땅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지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교리와 성약 65:5-6)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

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교리와 성약 88 : 64)

성스러운 기록에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로 가득차 있습니다.

기도는 이노스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노 4—5참조)

아버지 엘마의 기도는 천사로 하여 아들 엘마를 회개케 했습니다. (모 27 : 14참조)

아버지와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한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2 : 14—17참조)

기도는 호수로부터 갈매기를 불러 개척자의 곡식을 떨하지 않게 했습니다.

모든 기도가 눈에 띄는 응답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간곡한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영에 의해 응답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은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만일 더 많은 증거를 원하면 이러한 일이 참된지를 알기 위하여 네 마음속으로 내게 간구하던 그날 저녁 일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여기느냐?”  
(교리와 성약 6 : 22—23)

주님께서서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내게 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각각 다른 일곱 개의 계시, 즉 교리와 성약 6편5절, 11편5절, 12편5절, 14편5절, 49편26절, 66편9절, 75편27절에서 이 약속을 거듭 되풀이 해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8 : 62—64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친구여,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남겨주어 내가 곁에 있을 동안에 나를 부르라고 명한 이 계명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

각하게 하노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이 약속이 모두 참되다는 것이 나는 나 자신의 간증을 드립시다. 나는 그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니파이와 이노스처럼 나도 “공의롭고”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아침 저녁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계속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도록 훈련을 받아 왔습니다. 이같은 습관은 그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도의 응답으로 장난감을 찾았고 좀 더 커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숲속에서 잃어버린 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의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교리와 성약 6 : 23)

주님께서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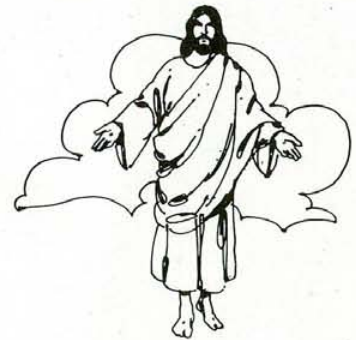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 (교리와 성약 9 : 8—9)

나는 이노스가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 (이노 10) 라고 말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같은 방법으로 기도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땅위에 퍼져 그 주민이  
받아 들일 수 있게 하라.  
또 인자가 밝은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올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여 이 땅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지어다.”  
(교리와 성약 65:5)



대한 응답을 받아 왔습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령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병어리를 말하게 하며 절름발이를 걷게 하리라.” (교성 35 : 9)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모로나이가 약속한 것들을 시도해 보았으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물론경이 참되다는 신성한 확증을 얻었습니다. 나는 또한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기도하면 “성신의 권세로써 온갖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로 10 : 4—5참조) 나는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



#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받음

제이 엠 토드 엔사인 편집부장

지난 6년 동안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해 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가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에 의해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받았다. 그는 최근에 작고하신 휴 비 브라운 장로로 생긴 공석에 부름받은 것이다. 헤이트 장로의 거룩한 성임은 지난 1월 8일 목요일에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있었다. 이것은 1975년 12월 2일 브라운 장로의 서거 이후 5주가 조금 지나서였다.

이 성임 사도는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그는 사업계와 일반 시민과 교회에 그의 뛰어난 지도력과 이해심, 그리고 탁월한 관리 능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70년 4월 6일에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은 이후 헤이트 장로는 그가 맡은 주례 대회의 관리를 위해 여러 교회를 방문해 왔으며 신권 지도자들에게 부름을 완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솜씨로 존경과 사랑을 받아 왔다.

“나는 조직을 강조해 온 사람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지 염려해 왔습니다.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할 때면 나는 우선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나의 주요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 고등 평의원 및 감독과 모임을 가질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칠판을 즐겨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

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관장단에서 지시하고 교회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행할 때 교회 조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깨닫게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적절히 조직을 갖추고 책임을 수행해 나갈 때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연결되며 회원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회원들을 크게 격려해 주는 이러한 대회가 끝나면 헤이트 장로는 다시 교회 본부로 또 그가 아낌없이 봉사하는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그와 그의 아내 루비 헤이트 자매는 금년에 46회 결혼 기념일을 맞게 되며 그들에게는 결혼한 세 자녀가 있다. 존 엠(캐런) 헨츠먼 부인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으며 데이비드 비 헤이트 2세는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에, 그리고 로버트 피 헤이트는 유타주 샌디에 살고 있다.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아들 하나가 감독이지요. 나는 곧잘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감독님,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오?’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와드에 몇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나는 다시 ‘교회에서는 우선 가족을 돌볼 것을 바라고 있지’라고 해 줍니다.

“나는 자주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 줍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감독이며 스테이크 부장이지만 가정에 소홀하여 가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는 예언자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우

리는 모두 지도자로서 그리고 회원으로서 가정과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구세주의 말씀에서 나는 훌륭한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학자는 유타인에게는 곡식을 심고 거두며 야채를 깨끗이 다듬고 씻는 방법 등 무려 613가지의 율법과 규칙이 있어 그것이 그들의 생활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들의 하찮은 간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사랑하라 (마 22: 35—40참조) 이 모든 것은 봉사를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사업과 그 사업의 성공을 염려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웃과 친구와 동료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염려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그들을 염려한다면 그것은 봉사를 생각해 해 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온갖 계획 안에 봉사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와 신임 사도가 지닌 가장 훌륭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며 이제 그것은 그의 생활에서 어떤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69세로 서로 다른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복음의 원리를 평생토록 기르고 시험한 후에 이 새로운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 그가 부드럽게 그러나 의연히 “복음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가 경험을 통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 그는 1906년 9월 9일에 아이다호주 오클리에서 태어나 그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의 할아버지는 캐시어 아이다호 스테이크의 초대 스테이크 부장이었으며 그의 아버지(헤이트 장로가 9세 때 별세)는 그 마을에서 은행가였고 아이다호주 상원의원이었으며 감독이었다. 10대의 어린 데이비드 헤이트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충분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22세에 유타 주립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년 후에는 루비 울슨 자매와 결혼하여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백화점의 새 지점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는 직업인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상품 판매 관리에 종사하였다.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후 4년 뒤에 다시 록시산맥이 있는 고장으로 돌아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어느 큰 백화점의 판매 총 지배인이 되었으며 그 후 몽고메리와 드란 어느 대연쇄 백화점으로 옮겨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지역에서 25개의 점포를 관리했다. 그 후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오클랜드로 가서 지역 책임자가 되었다.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이러한 생활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 그는 미 해군 중령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병참 및 군수 물자를 적소에 보급하는 전술 작전을 관리했다. 그는 여기서 현격한 공을 세워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다시 몽고메리와드에 복직되었으며 시카고에서 165개의 점포와 수천

명의 종업원을 관리하게 되었다. 1951년 그의 나이 45세가 되던 해에 그는 개인 사업을 하기로 작정하고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에서 몇 개의 철물 상점을 구입했다.

팔로 알토에서 그는 고등 평의원의 직책에서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으며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시의원으로서 출마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는 2대에 걸쳐 팔로 알토시의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스탠포드 대학교 팔로 알토 종합 병원의 원장직도 맡게 되었다. 그밖에도 사업계와 직장과 대학 지도자들 가운데서 수많은 공공 봉사 활동을 하였다.

복음의 개념을 수없이 적용해 본 헤이트 장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그를 스코틀랜드 선교부장으로 불렀다. 그 후에 신권 선교 위원회 위원과 십이사도 지역 대표를 지내고 1970년에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는 유타주 프로보로 이사하여 거기서 3년 동안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의 보조로 학교 기부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에 관여했다.

그에게 사도의 부름이 주어졌 것은 1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였다. “나는 모임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킴블 대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나는 즉시 그 방을 나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곧 킴블 대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데이비드, 나 여기 신전에 있소.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곧 와 줄 수 있오?’ 그 때 내가 대관장님께로 걸 어간 그 일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스테이크 대회에서 잘못 말한 것이 있나, 아니면 벨기세택 신권과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

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십이사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그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의 명단에서 나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해 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도 탐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내가 도착하자, 킴블 대관장님은 나를 어느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에게 부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나는 위대한 신학자와 세상의 사상가들이 교회와 말일성도를 어떻게 볼까 하고 항상 걱정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인간에 대해 갖고 있는 깊고 넓은 지식과 그들의 인간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업계에서, 군대에서, 대학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걱정이 근거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념을 무색케 할,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위대한 관념이란 실제 그곳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만이 그러한 모든 훌륭한 관념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위대한 개념, 진리, 기쁨, 조직, 계획 및 시현을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간증을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에 대해, 그리고 인간을 구하고 그들에게 영원을 내다볼 수 있게 해 주는 복음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에 대해 내가 느끼고 감사하는 바를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에 견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계획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



# 주님께서 기도를 제정하신 이유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솔** 트레이크 신전에 있는 십이사도 평의회실 서쪽 벽에 있는 깃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주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 있다.

이것은 우리의 수님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무한하고 영원한 대속을 성취하기 위한 힘을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육적이며 영적인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가 겪은 이 고통에 비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었다.

영원을 통해 신과 천사와 인간이 한 모든 기도 가운데서 이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기도였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깃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생각과 말씀에서 완전했던, 아담의 후손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이가 그가 짊어진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의 아버지께 승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그곳 감람나무 숲에서 순수한 경배의 정신과 완전한 기도 가운데 마리아의 아들은 인간으로 짊어지기 가장 힘들어 짐을 지고 피로와 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면서 잠이 든 유대 땅의 고요한 밤에 하나님의 아들은 회개를 조건으로 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 짊어지셨다.

위대한 엘로힘은 그 때 그곳에서 고통받는 그의 종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찾는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셨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태어난 아들은 그의 거룩하신 아버지에게 그가 이 세상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힘을 달라고 간구했다.

이 시간은 모든 영원이 갈림길에 놓였던 시간이었다. 죄를 모르는 그에게 주어진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그의 땀 구멍에서는 피가 맺혀 나왔다. 그래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고 까지 하게”하였다. (교성 19:18) 창조의 새벽부터 송고한 이 시간까지 그리고 이 대속의 밤으로부터 영원을 두고, 이러한 투쟁은 없었으며 또한 없을 것이다.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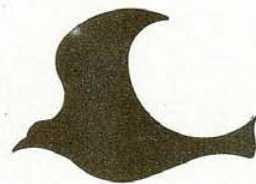
터……인간들 가운데” 내려 오셨다. (모 3:5) 그는 태초로부터 만물의 창조자요 지지자요 보호자였다. 그는 흠으로 그의 육신을 만드셨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셨다. 그는 그 때 그곳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어 모든 인간은 불사불멸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구속주이신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생긴 영과 육의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대속하셨다.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친 그가 인간으로서 가장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드린 것도 바로 이 시간이었다. 전능자의 뜻이 다른 전능자의 뜻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다. 그는 구속주로 택함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모세 4:2)라고 한 자신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랐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순종하는 아들로서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예지의 권세와 영적 통찰력을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 받았다. 것처럼 큰 권세와 은사를 지녔음에도 그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큰 권세와 은사를 지녔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 될지도 모른다.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해지고 지적으로 더욱 발전해 가면 갈수록 그는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그는 사물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며 또 그의 위치를 앞으로 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께서는 모든 권세와 예지와 선의 원천이신 아버지와의 끊임 없는 교통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성역을 베푸는 동안 그리스도는 그의 십이사도를 택하셨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율법을 “땅끝까지”(교성 109:23) 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열두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특별한 증인이 되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신의 동반과  
다음 세상에서의  
영생을 간구해야 한다”





위해 선택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택하셨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어 “밝으며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 6:12-13)

그가 체포되어 고통을 받을 때가 가까왔을 때 십이사도에게 깊이 새겨 줄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부여받은 일을 수행하고,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려면 그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이 진리를 그의 중재의 기도를 통해 가르치셨다. 이에 대한 기사의 일부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다.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부활 후에도 기도하신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영화롭고 완전하게 되었을 때 니파이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영적 경험을 갖도록 하셨다. 그는 그러한 일을 설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 “그 간구하신 대로 날날이 기록하지는 못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도를 들은 자들은 다 음과 같이 간증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니삼 17:15-17)

그러나 여기 갯세마네 동산에서 구세주께서는 고통을 받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고민에 잠겨 있는 모든 인간의 본보기로 그의 온 정성을 아버지께 쏟았다. 그가 어떤 것을 간구했으며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영광과 찬미의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가 니파이인 가운데서 기도하신 것처럼 갯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도 기록될 수가 없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가 세 번에 걸쳐 하신 기도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다.

성경에는 갯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더라”(누가복음 22:42-44)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다. 만사를 훌륭히 행하셨고 그의 모든 말씀이 옳았으며 그가 강조한 모든 것이 당연했고 아버지의 영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이 세상의 땅을 밟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온전하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형제인 우리들에게 그 자신의 기도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도가 다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는 우리에게

게 더욱 절실한 것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신앙에 찬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것처럼 그와 아버지가 제신 곳에 가기 위해 기도의 율법을 배우고 그것에 좇아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목표를 마음에 간직할 채 기도의 영광스러운 특권

##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16)



에 진정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요약해 본다. 담대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자. 말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과 권세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권세를 얻도록 하자. 아마도 다음 열 개의 항목은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며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완전하게 하도록 돕고 인도해 줄 것이다.

### 1. 기도란 무엇인가.

한 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았으며 그의 뜻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와 이야기하였으며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에게서 조언과 지시를 들었다. 전세에서의 영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그 때 우리는 보면서 행하였다. (고후 5:7참조)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옛날처럼 그의 음성을 듣거나 그의 얼굴도 보지 못한다.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늘의 천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의 조언과 지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자비로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교통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제정해 주셨다. 나는 어느 책인가 다음과 같이 적은 일이 있다.

“기도한다는 것은 육성으로 또는 마음속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도에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포함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영원하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엄숙한 시간이다. 기도는 고백하는 시간이다. 성도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니이 2:7)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 죄를 완전히 씻는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이다.”(물론 교리, 제2판, 581페이지)

## 2.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때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7.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해도 되는 그런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다.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씀은 최초의 경륜의 시대에 그가 하신 말씀이다. “이에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모세 5:8, 16)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4:7) 가정 복음 교사는 교회에서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교성 20:47)을 권고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주님은 “제명”으로 그의 말일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해야 할 때에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을 심판하는 자 앞에서 기억되리라.”(교성 6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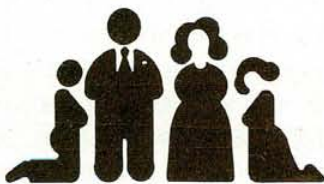
8. 합당한 기도에는 세상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따른다. 모든 계시에서 보여 주듯이 천국의 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활짝 열려 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의로움을 부여 주시며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고 세상은 그들에게 그 열매를 주며 복음의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

9. 기도는 구원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왕국의 구세주와 교통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해의 왕국에서 안식을 얻은 자나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모 5:13)

## 3. 아버지께 기도함

우리는 아들(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엘로힘)께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다. 계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설명해 준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니삼18:19)고 주 예수께서 니파이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여러 교회에서 이를 잘못 가르치고 실행하는 예는 놀라울 정도로 많으며 참다운 성도들 가운데서까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루에 두번씩  
가족기도를 하고  
여기에 개인 기도와  
식사 때의 축복을  
하게 하고 있다.”



세상에는 소위 성인이라는 자들에게 기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와 중재자가 되어 줄 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종파의 공식적인 기도서에는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와 아들에게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성령에게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규례가 아니라 예외인 것으로 생각하는 교회도 있다. 또 직접 예수께 간구함으로써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들로부터 답이 온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딤후 2:5)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요셉 스미스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였으나 그 응답은 아버지에게서가 아니라 아들에게서 주어졌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와 중보자요(아버지 아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응답을 주실 때 때때로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아버지인 것처럼 말하는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말하자면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일인칭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제임스 이 탈매지 저 신앙 개조의 465페이지에서 시작되는 “아버지와 아들: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의 교리 해설”편을 참조하도록 한다.

물론 우리와 모든 예언자가 합당하게 주 여호와(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란 노래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지 아들에게가 아니며 또 기도는 언제나 아들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다.

## 4. 세상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간구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이거나 영적인 축복이거나 간에 우리에게 합당하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것을 간구할 권리가 없다. 우리의 간구는 의로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약 4:3)

엘올레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자비와 구원 뿐만 아니라 곡식과 양떼와 들과 권속에 대해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엘 34:17-29 참조)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마 6:11)을 언급하고 있으며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이르셨는데(약 1:5) 이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라는 뜻이다. 현대의 계시에는 “너희가 만사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명하노니”(교성 46:7)라고 기록되어 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무것도 주 앞에 행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희들 영육에 이로운 것이 되도록 내가 행한 일을 베크게 성결케 하시리니라”(니이 32:9) 주님은 모든 충실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다. “너희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아 기쁨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가져다 주는 비밀과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교성 42:61)

지혜와 의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93:1에 나와 있는 약속의 성취를 포함하여 간증과 계시와 성령의 모든 은사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신의 동반과 다음 세상에서의 영생을 간구해야 한다. 물론경에는 니파이인의 열두 제자가 “각기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성신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였더라”(니삼 19:9)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성신의 은사이며 영원한 것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영생이다.

#### 5.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영적 복지를 구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유익을 위한 기도도 있다. 예수님은 그의 위대한 중보의 기도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요 17:9)라고 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딤후 4:10)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성도들과 진리를 믿고 알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 가운데는 신앙의 권속(교성 121:45)에 속한 자들과 회복된 복음을 탐구하는 자들이 있다. 야고보는 교회 회원들에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라고 말했다. 주 예수께서는 집회에 참석하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 관해 소망을 갖고 “나의 이름으로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니삼 18:23)여 그들이 회개하여 침례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 6. 언제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항상 기도하라”(니이32:9 참조) 이 말씀은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매일 기도하며 항상 마음에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언제나 영원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다. 엠올레크는 “아침 낮 밤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며 골방과 은밀한 장소와 광야에서 주님께 우리의 영육을 다 쏟아 기도하라고 했다. (앨34:17-29 참조) 예수께서는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하도록 명하셨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삼 18:15,21)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루에 두번씩 가족 기도를 하고 여기에 개인 기도와 식사 때의 축복(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그밖의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이다)과 집회에서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고 있다.

#### 7. 기도하는 방법

언제나 아버지를 부르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꼭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거나 그렇게 해도 좋을 때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개인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며 주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경배와 교리의 말을 한다.

기도를 할 때 너무 소홀히 하거나 잘 이행하지 않는 것과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간절히 기도한다. 단순한 말로는 불충분하다. 헛되게 되풀이 해서 말하는 것도 충분치 못하다. 미사여구는 아무 가치가 없다. 참으로 훌륭한 기도는 언어의 훌륭함에 있는 것이 아니며(비록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기도의 말이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그 말에 따르는 느낌에 있는 것이다. 물론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라(모로 7:48) “참 마음으로 구하여 간구하지 아니할진대 사람에게도 또한 간악한 자라 헤아려질 것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헐벗은 자를 외면하면,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랴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는 헛된것이다.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 오지  
아니할 것이요”  
(앨마서 34:28)



이라. 참으로 저에게 유익함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심이라.”(모로 7:9)

2. 성신의 권세로 기도한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이에 따른 약속은 다음과 같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교성 42:14), “만일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되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교성 50:29) 기도가 완전케 될 부친년에 대해 경건은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다. “그 날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게 되리라.”(교성 101:27)

#### 8. 자유의지와 기도를 모두 활용한다.

아무리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이 해결 되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며 그것은 예나 지금

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이 세상은 시험의 기간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환경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고 보고서가 아니라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길을 추구할 것인가를 시험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기도로 주님과 상의하고 우리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영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물문경을 번역할 때 요셉 스미스는 단순히 판에 새겨진 글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연구하여 알아내야 했으며 그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후에 그는 그의 결론이 옳았는지를 주님께 물었다. (교성8 및 9참조) 그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도와 실천은 병행한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을 때 우리는 힘차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로 주님과 상의하여 옳은 결론을 얻을 힘을 얻게 된다.

#### 9. 기도의 순서에 따른다.

기도의 순서는(많지만) 간단하고 쉬우며 진실하고 효율적인 기도에 수반되는 영이나 예배의 정신에 기여한다. 아버지는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승영에 이르신 분이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이에 비하면 땅의 티끌에 지나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이다. 어떤 순종의 행위든 기도할 때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해 주는 것은 모두 선한 것이다.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영원의 거룩한 본질을 깊이 생각한다. 경외와 경건과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또 조용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기도한다. 우리는 그의 응답을 마음으로 듣는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팔짱을 끼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경외와 경건과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팔짱을 끼고  
무릎을 꿇고...”



한다. 거룩한 말을 기도의 말로 사용하며 어느 사람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여 그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 10. 기도한 대로 생활한다.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려 하지 말라”는 옛 말이 있다. 이 말은 기도와 행동을 하나로 묶으라는 뜻이다. 사실상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이 기도의 결과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며 우리가 합당하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의 길을 알려 주는 효력을 갖는다. 선교사로 떠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간절히 열렬한 신앙으로) 기도하는 소년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자신을 준비할 것이며 그 봉사의 부름을 받아들일 것이다. 항상 신앙으로 신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젊은이는 세상적인 결혼에 만족할 수가 없다. 기도와 실천은 이처럼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율법을 자세히 이야기한 앰울레크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험벗은 자를 의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라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 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같이 되리라.” (엘마서 34 : 28)

우리는 이제 기도와 기도에 따르는 중요하고 영원한 원리 몇 가지를 간단하게 그리고 불충분하게 이야기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교리가 올바르다는 것과 기도가 영생으로 이끌어 주는 살아 있는 실체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뿐이다.

기도는 횡설수설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욕욕의 마음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다.

믿지 않은 자와 거역하는 자에게 기도란 정신적 불안에서 오는 부질없는 종교적 행위로 보일 수도 있으나 기도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에게 그것은 인생의 온갖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닦이 되어 준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방인의 헛된 중언부언이 아니며 기도서에 있는 미사여구도 아니며 탐욕에 찬 인간의 진지하지 않은 헛된 말도 아니다. 기도란 지식에서 비롯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자라고 영광진리로 바쳐지는 말이다.

기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영생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도록 해 주는 문을 열어 준다. 기도는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기도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우리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의 영의 권능으로 그의 음성을 듣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말일성도와 또 이들과 함께 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와 기도의 결과로 의로운 생활을 하여 이 세상과 온갖 선으로 충만한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이 모든 것을 간증으로 전하고 아버지께 빌며 또 그렇게 되기를 아들의 이름으로 빈다. 아멘

**교**회 초기에는 말일성도들이 그들이 거둔 곡식이나 기른 가축으로 십일조를 바치는 일이 많았다. 이것은 현물 십일조라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인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고자 했다. 십일조를 쌓아 두기 위해 감독의 창고를 짓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감독이 십일조를 돈으로 받는 일이 더 수월해졌다. 오늘날 현물 십일조는 거의 없어졌다.

다음 이야기는 현물 십일조가 아직도 보편적인 방법이었을 때 유타주 허리케인에서 일어났던 실화이다.

엘리스의 언니 케이트와 밀드레드는 반짝거리는 깡통을 하나씩 들고 거실로 들어 왔다. 그들이 동전을 세어 보려고 깡통에 든 동전

을 탁자에 쏟을 때 동전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십일조를 바치면 감독님이 기뻐하실거야.” 밀드레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착한 소녀로구나’라고 말씀하실거야” 케이트가 덧붙였다.

이제 네 살된 엘리스는 감독님

께 십일조로 낼 동전을 세고 있는 언니들을 쳐다보면서 자기도 십일조를 바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엘리스도 십일조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엘리스는 십일조 창고로 가는 건초를 실은 마차의 건초 더미 위에 앉아 먼지나는 길을 가는 것을 좋아했다. 또 엄마가 나무틀로 딱딱하

## 십일조를 바치는 행복한 사람

엘리스 스트래튼



고 노란 버터를 만들어 포장지에 싸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 했다. 엄마는 그 버터 중에 얼마를 “십일조 버터”로 따로 구분해 놓았으며 닭도 “십일조 달걀”을 낳았다.

엘리스는 엄마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만들고 있는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엄마 난 언제 십일조를 바칠 수 있어?”라고 물었다.

엄마는 반죽으로 범벅이 된 손을 그대로 반죽 그릇 안에 둔 채 잠시 엘리스를 돌아 보고는 “그래 너도 이제 큰 소녀가 되어 가는구나. 이번 여름이 되면 다섯 살이 되겠지. 십일조를 바치고 싶기도 하겠구나. 언니더러 엄마가 반죽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라. 너도 언니들이랑 같이 가려므나.”라고 말했다.

엘리스는 춤을 추듯 거실로 뛰어 들어가며 “나도 감독님한테 간다.”라고 말했다.

“그래, 갈 수는 있지만 십일조를 바칠 게 없잖아” 케이트가 말했다.

“엘리스야 잠깐 기다려라”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손에 묻은 반죽을 씻어 낸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나하고 잠깐 가자”

엘리스는 엄마를 따라 광으로 갔다. 엄마는 밀을 한 강통 퍼 마당에 뿌리면서 “구, 구……”하고 닭을 불러 모았다.

닭들이 우루루 엄마 곁으로 몰려 왔다. 엄마는 어렵지 않게 어린 수탉 한 마리를 움켜 잡았다. 닭은 놀라서 꼬꼬댁거리며 소리

를 질렀다. 엄마는 그 닭을 내밀면서 “엄마가 다리를 묶을테니 꼭 잡고 있어.”라고 말했다. 엄마는 닭장 우리에 걸려 있는 여러 개의 끈 가운데서 짧은 것을 하나 골라왔다. 닭다리를 붙들어 매면서 엄마는 “이 닭은 네가 닭을 잘 먹이고 달걀을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감독님께 바칠 너의 십일조란다”라고 말했다.

“야! 나도 십일조 내려 간다, 정말야!”하고 외치면서 엘리스는 집으로 뛰어갔다.

두 언니는 엘리스의 팔에 끼어 퍼덕이는 닭을 보고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울타리 옆에는 보라색 테이지가 만발해 있었고 감독의 집까지 여섯 개의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사방에서는 과일 나무 잎이 무성하게 팔락이고 있었다. 엘리스는 닭을 꼭 껴안고 있었으며 닭은 발걸질을 하여 빠져나가려 했다. 닭의 검은 깃털 위에 반사되는 햇빛은 초록과 황금색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닭은 감독에게 바친 어떤 닭 못지 않게 아름다웠다.

감독은 그들이 대문에 들어서서 이것을 보고는 현관을 열고 기쁜 소리로 “어서들 오너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엘리스의 팔에 안긴 닭을 보고 “오……이건 무슨 닭이지?”라고 물었다.

“십일조 닭이에요” 엘리스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감독이 말했다. 감독은 엘리스에게서

닭을 받아 가만히 현관에 내려 놓고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거기 앉아라” 감독이 말했다. 감독이 그의 책상에 앉자 케이트와 밀드레드는 강통에서 동전을 꺼내 감독에게 바쳤다.

감독이 영수증을 만드는 동안 그들은 윤이 나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아름다운 방안을 둘러 보고 있었다.

감독은 영수증을 철에서 떼어 들고 일어섰다. 각자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정말로 착한 일이야”라고 말했다.

엘리스는 영수증을 받아 쥐면서 감독에게 “제 영수증을 읽어 주세요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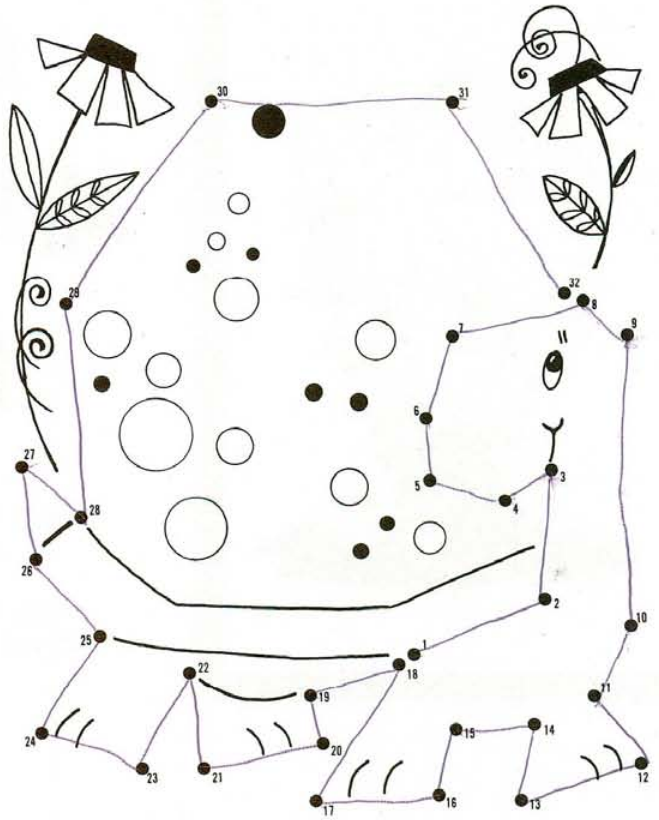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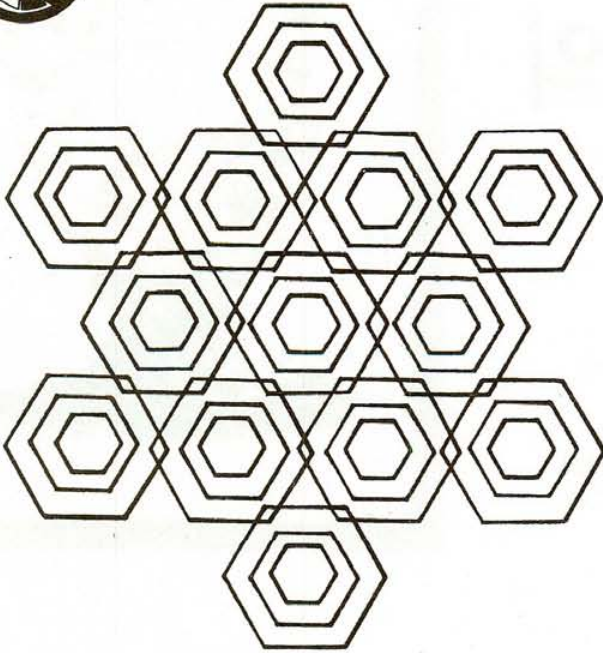
감독은 “그러지 그러고 말고”라고 말하면서 엘리스의 영수증을 읽었다. “엘리스 아이숨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에 검은 닭 한 마리를 십일조로 바쳤음.”

엘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렇게 크고 나는 이렇게 작을테, 이 위대하고 큰 훌륭한 교회에 나도 십일조를 바쳤구나!”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영수증을 받아 쥐고는 현관으로 나왔다. “이봐, 예쁜 수탉아, 넌 이제 내가 교회에 바쳤기 때문에 교회 닭이야”라고 닭 앞에 영수증을 보이면서 말했다.

감독과 그의 아내는 문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서 있었다. 엘리스는 대문을 뛰어 넘어 언니들보다 앞서 가면서 마을에서 십일조를 낸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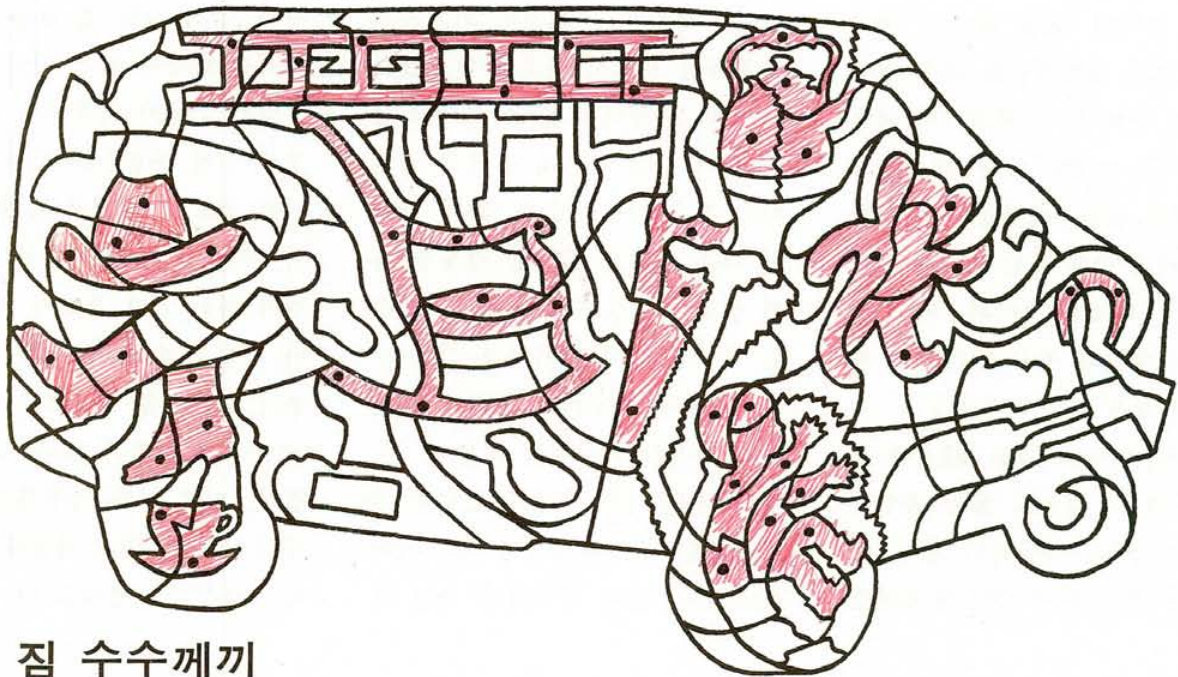
# 심심 풀이



## 몇 개나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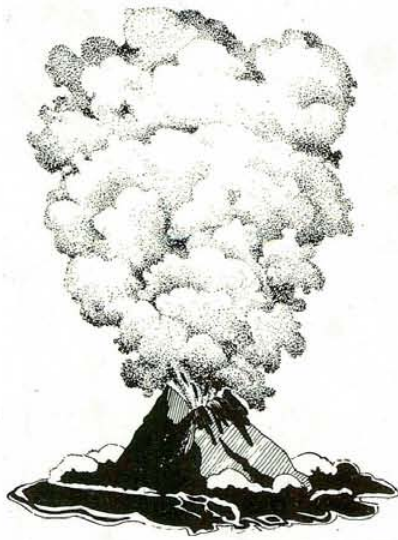
6각형이 39, 마름모꼴이 24, 삼각형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까?

## 점 잇기 수수께끼



## 트럭 짐 수수께끼

점이 있는 공란에 색칠을 하여 이 트럭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 알아 맞춰 보십시오.



# 새벽의 섬

조운 앤더 무어  
그림, 글

피지의 대부분의 섬은  
해저 화산 폭발로 생겼다.



**피**지의 어린이들은 우리가 본토라고 부르는 큰 대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피지는 주위가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태평양의 교차 지점에 있는 수백 개의 작고 아름다운 섬들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섬이 생긴 많은 전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는 과학적인 것이다. 피지 군도는 대 화산과 핀의 머리보다 작은 바다 동물로 이루어졌다.

태고에 어둡고 깊은 해저에 틈이 벌어져 그 사이로 끓는 용암이 흘러나와 이에 바닷물이 끓고 재가 날아 작은 해저 산이 형성되었

다. 화산이 계속 폭발하면서 용암이 자꾸만 쌓여 거대한 용암 산의 꼭대기가 바다 밖으로 돌출하게 되었다. 화산은 사화산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거세게 파도를 일으켰으며 연기를 뿜어 내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넓은 바다에 흩어진 딱딱하고 검은 암석이었다. 피지 군도의 다른 섬들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생겼다. 섬 주위의 얇은 물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인근의 바다는 산호류의 작은 수생 동물로 가득하게 되었다. 수생 동물은 모두 주머니 모양을 한 거품같은 생명체였으며 맨 위에 붙어 있는 입은 꽃잎같이 생긴 측

수를 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동물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었다. 바닷물에서 금속(탄화칼슘)을 빨아 들여 그의 몸 벽을 통해 석회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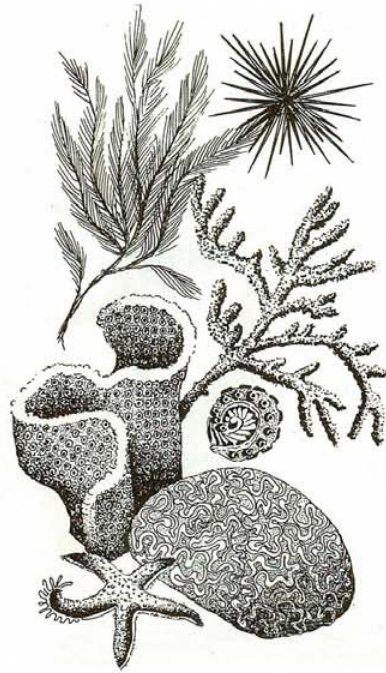
피지 군도가 이루어질 때 이 산호류 수생 동물은 제각기 자기 주위에 조그만 석회석의 집을 지었다. 수많은 산호류 동물이 군거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집을 지었다. 이 군거 집단은 화산 암벽에 붙어 산호초를 이루고 서로의 꼭대기에 석회석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다른 바다 동물들도 산호와 같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불가사리, 달팽이, 성게도 이 산호초에

불어 살게 되었다. 바다 식물인 산호말 무리도 석회석을 만들어 집을 지었다. 어떤 산호는 수면 위를 솟아 올라 환상 산호도라는 섬을 이루기도 했다.

그 후 오랫동안 이 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태양에 그을리고 다시 비에 젖고 파도에 부딪치며 강풍을 맞고 하는 동안에 이 섬은 조금씩 표면이 부서져 모래가 되고 다시 흩어 되어 갔다.

이 동안에 강풍이 불어 아시아나 말레이 반도로부터 이곳에 손님이 오게 되었으니 이 여행자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 다니는 캅테리아였으며 썩은 흙 먼지였다. 캅테리아가 이 섬에 상륙하여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다 위에 솟아 오른 이 새로운 섬들을 맨 먼저 발견한 생물은 소산스럽게 지저귀는 새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비갈매기와 갈매기, 바다제비와 군함새가 그 위를 선회하며 살폈다. 그들은 이 메마른 섬에서 먹을 것을 하나도 발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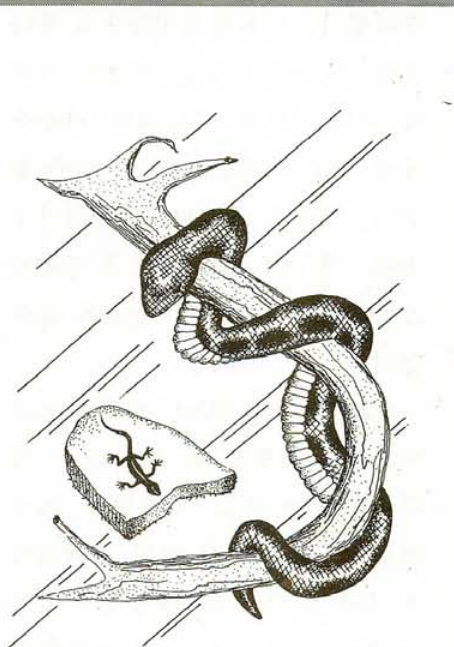


많은 바다 동물들은 화산 섬 주위에 있는 작은 피지 군도와 암초를 만드는 일에 공이 컸다. 위에서부터 성게, 부채꼴 바다 산호, 고동 산호, 뿔 고동 산호, 달팽이, 골산호, 불가사리.

수 없었으나 미래를 위한 식량을 그곳에다 남겼다. 그들이 삼킨 씨가 몸을 통해 다시 배설되어 땅에 떨어져 발아한 것이다. 먼지처럼 작은 민들레 씨 따위의 아포와 씨앗 등속의 또 다른 생물이 남미에서 바람에 불려 이 섬에까지 오게 되었다. 이 작은 식물은 풀, 갈대 및 깃털같이 생긴 고사리과 식물 등이었다.

바다도 계속 일을 했다. 계속 다른 땅에서 식물을 끌어 내려 이곳으로 운반했다. 야자수는 파도를 타고 수만리를 건너 이곳에 도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훌륭히 자랄 수가 있었다. 포탄같이 생긴 이상한 열매를 맺는 빵나무 열매도 바다를 거쳐 이 섬에 도착했을 것이다. 영란속의 식물이나 죽마처럼 생긴 나사 소나무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섬은 짙은 녹색 식물과 붉은 색, 라벤더 색, 분홍색 및 오렌지 색의 나무로 아름답게 장식되고 있다. 지금은 열대의 꽃, 협죽도과의 관목, 서양 유도화,



나무 뗏목을 타고 피지로 표류해 온 뱀과 도마뱀, 피지에는 큰 구렁이와 작은 뱀도 있다.

무궁화 및 난초가 한창이다. 이 섬은 크고 작은 모든 생물을 환영했다.

그 후에 곤충이 왔다. 거미, 나비, 모기, 파리가 바람에 날려 와 먹이를 발견하고는 더욱 곤충의 수를 늘려 갔다. 파충류도 도착했다. 푸른 꼬리를 가진 도마뱀이 야자수 나무에 붙어 왔다. 등에 털이 많은 제법 크고 나이 많은 거북이도 해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큰 뱀은 통나무에 몸을 감고 이 새 땅으로 편안히 올 수 있었다. 피지는 태평양 군도의 어느 섬보다도 뱀이 많다. 꽃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물고기와 함께 많은 산호초가 살게 되었다. 고래베가 이 근처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곳에 올 수 있는 짐승이 동물로는 날 수 있는 박쥐 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피지 섬을 발견하게 되었다. 최초의 피지인은 말레이 제도의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말레이아에서 왔으며 검은 피부



이 섬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바다의 새들이었을 것이다. 제비 갈매기와 군함새가 섬을 살펴 본다.

를 가진 사람들로 공예에 능한 인종이었다. 그들은 돌연장으로 통나무를 다듬어 카누를 만들어 거기에 마와 토란과 바나나와 사탕수수를 싣고 바다를 건너 새 땅을 찾았다. 그들은 돼지와 개도 가지고 갔다. 카누에 숨어 타고 온 밀항자도 있었으니 그것은 산쥐와 들쥐였다.

유럽인이 약 200년 전에 최초로 피지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 땅이 정원처럼 밝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높은 산이 거의 꼭대기까지 무성한 숲으로 울창하게 덮였고 강과 폭포가 있고 깊고 푸른 늪이 있으며 온천과 심지어는 금까

지 있었다.

인도, 중국 및 기타 태평양 군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화의 땅 피지로 이주해 왔다. 그들은 특별한 나무와 애완 동물 즉 동구우스와 미나새 그리고 수박과 배추 따위를 가져 왔다. 하와이인들은 큰 두꺼비를 이 땅에 가져 왔다. 유럽인은 이곳에 연장을 가져 왔으며 이 모든 사람들은 피지를 아름답고 현대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오늘날 피지는 국제 날짜 변경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하는 곳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일출의 나라를 “새벽의 섬”이라고도 부른다.

여러분이 피지에 가 보게 되면 그곳 사람들이 친절하고 명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피지 주민들에게는 그 나라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행복의 섬이다. \*



# 영원한 친구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은 이 젊은이의 재주와 용기에 크게 감명을 받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 갔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장남 요나단과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굳어져 성경에서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청년은 영원히 우정이 변치 말 것을 약속했다.

요나단은 이 약속을 마음에 굳게 새겨 두었기 때문에 “자기의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

사울 왕이 명을 내리면 다윗은 어떤 일이든지 훌륭히 해냈다. 사울이 다윗에게 군대를 주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고 했을 때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스라엘인은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로 맞아 들였으며 그가 전장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춤과 노래로 그를 환영하였다. 여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면서 기뻐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칭송했다.

다윗을 그같이 찬양한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매우 분개하여 질투와 의심이 그의 마음 속에 자라기

시작했다. 다윗은 다음 날, 전에도 그러했듯이 사울을 즐겁게 하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데 그 음악이 사울을 즐겁게 하기는 커녕 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와 다윗을 겨누어 두번씩이나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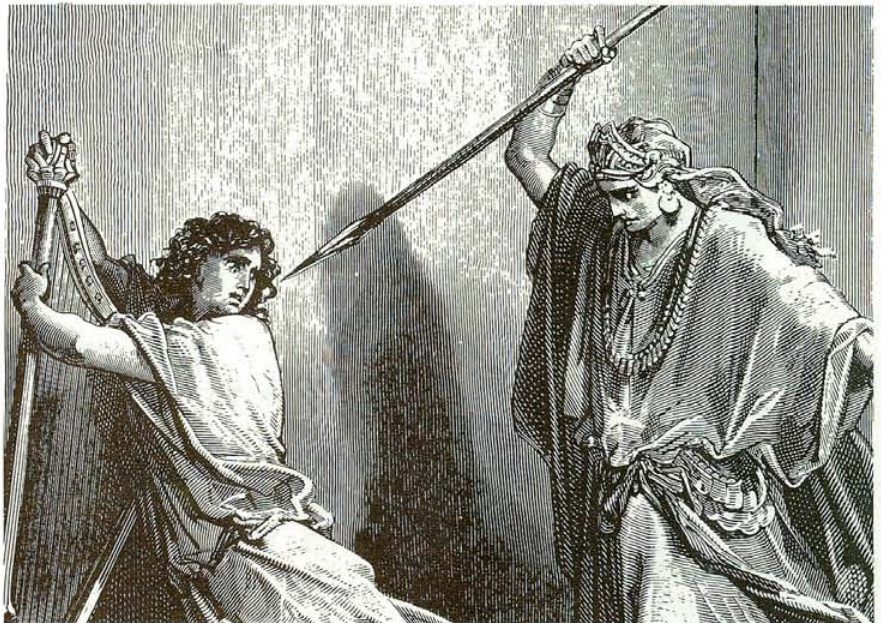
그 후 사울 왕은 다윗이 전장에서 전사하기를 바라면서 천 명의 군사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다. 따라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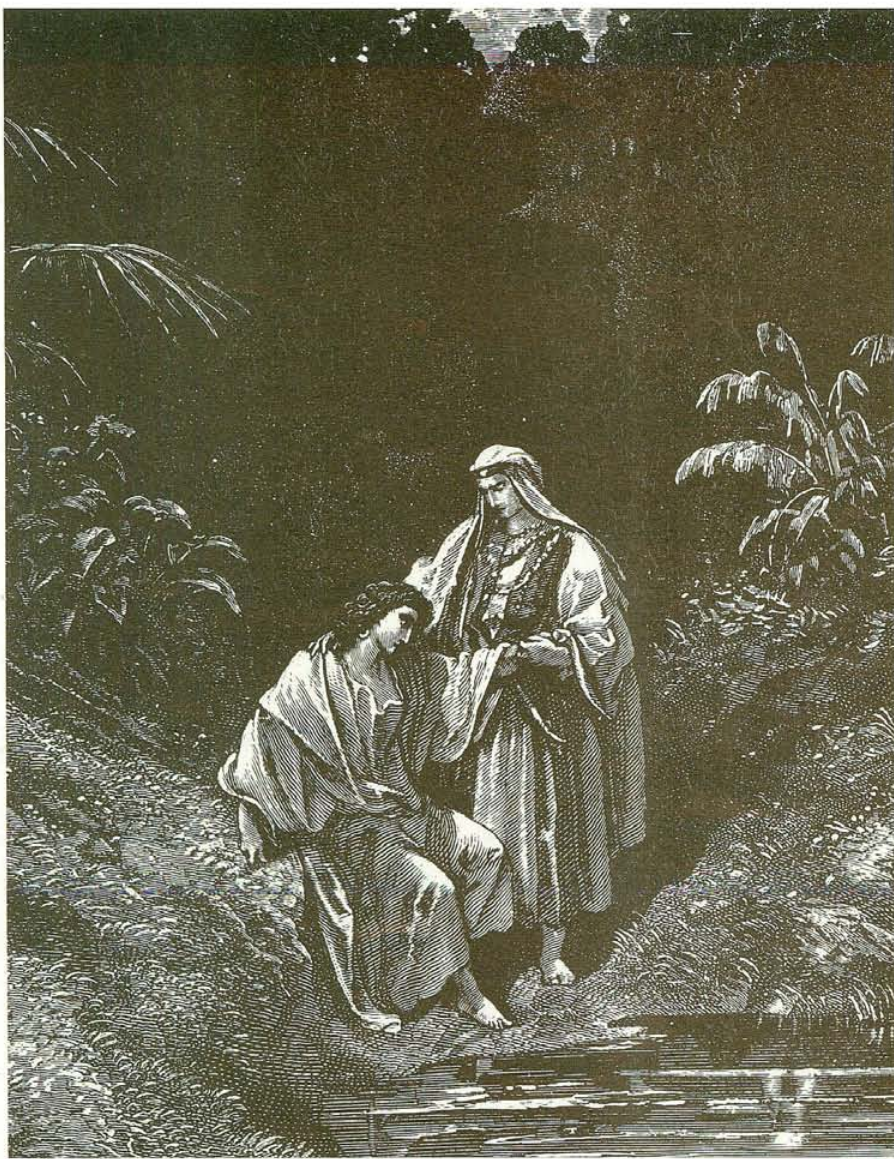
그의 계획대로 다윗을 없애지 못하자 사울은 그의 부하와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고

명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의 언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피신하라고 일러 주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라고 나아가 간했다.

요나단은 그의 부친에게 다윗이 전투에서 얼마나 용감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뢰었다.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아들의 친구를 죽이지





가 떨어졌다.

다윗은 밤의 어두움 속으로 도망하였으며 화가 극도로 난 사울은 부하들에게 다윗을 뒤쫓아 가 그를 죽이라고 명했다. 사울의 그러한 돌변한 태도가 다윗에게는 의외였으며 두려웠다. 몰래 친구 요나단을 만났을 때 그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관대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라고 말했다.

요나단은 그의 부친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일이 믿기 어려웠다. 사울이 노하여 요나단까지 죽이려 했을 때 요나단은 미리 준비한 화살로 그의 친구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냈다.

두 친구는 다윗의 안전을 위해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형제처럼 입을 맞추고 이별을 슬퍼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사무엘상18-20) \*



않겠다고 약속했다. 요나단은 매우 기뻐하며 다윗을 데려와 다시 사울과 결합하게 했다. 그러나 또 전쟁이 있어 다윗과 그의 군사가 승리를 거두자 사울 왕은 주님께 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일 때문에 노여워 하였다.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전처럼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데 다시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창은 다윗을 맞히지 못하고 그의 옆 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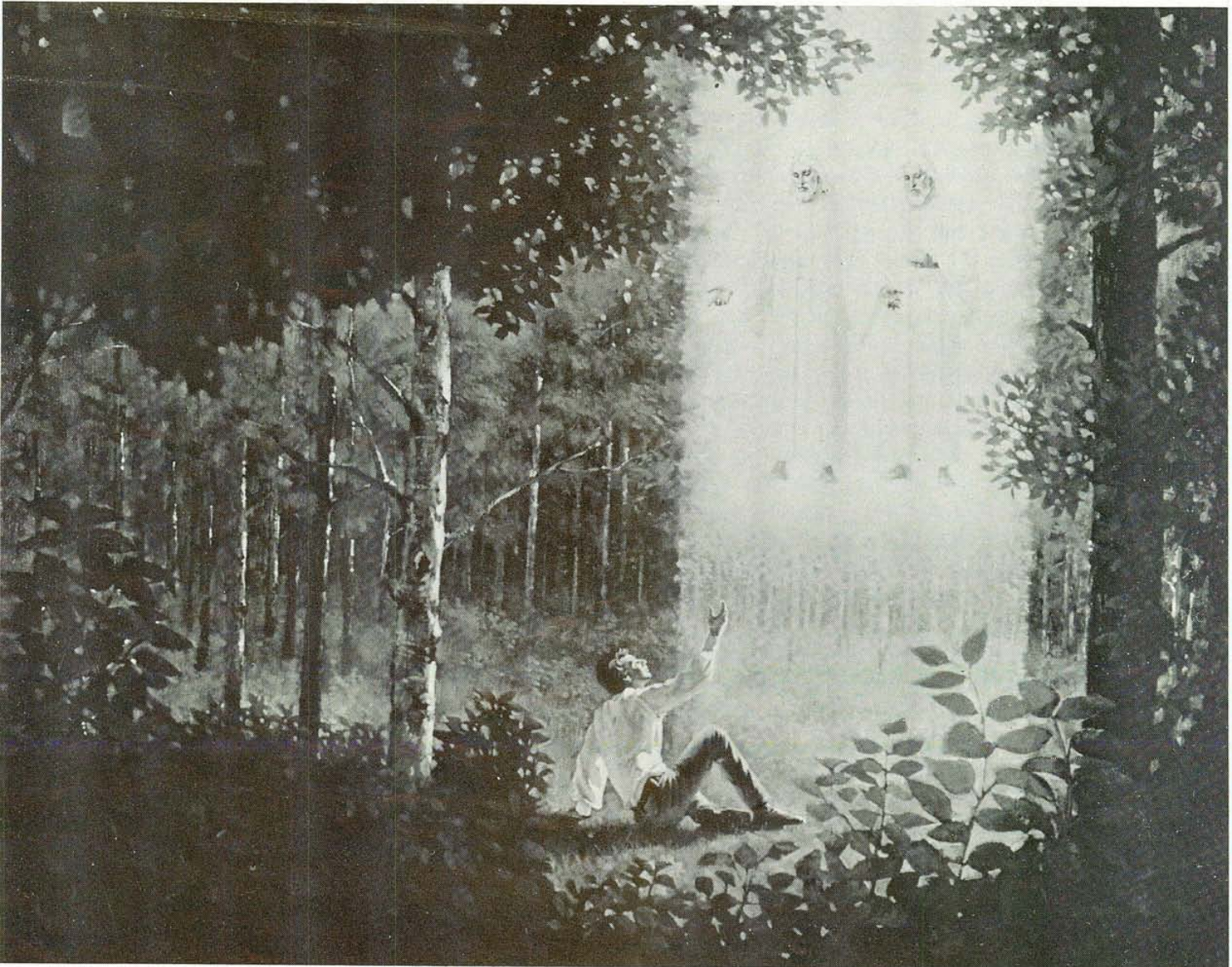
# 기도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

트루만 지 맛슨

“네 종교를 알라” 총서에 있는 말씀에서 발췌  
캘리포니아주, 1972-73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어떻게 14세에 숲으로 갈 수 있었으며 전에 소리를 내어 기도해 본 일도 없었으면서 (전에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뜻함) 어떻게 최초의 기도로 것처럼 놀랍고 기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나? 그것은 그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대답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방문이 요셉 그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기도, 어쩌면 여러 세대에 걸쳐 복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간구하던 장막 저쪽의 사람들의 기도, 곧 “나라이 임하옵시며”(마 6:10)란 수십억의 기도의 응답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현대의 대 행렬에 끼여 기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려고 노력할 때에 특



별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특권 가운데는 성신의 권능과 은사와 축복 그리고 신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증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앙은 어린이가 겸손히 부모에게 가서 그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히버 시 킴볼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 스티븐즈와 윌리스 공저, 1945, 60—7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며 “아득히 먼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만일 그 형상을 그들이 마음에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높은 원리이거나 “순수한 마음” 또는 구분할 수 없는 빛일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종교의 첫째 원리(혹은 기도의 첫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지니신 아버지로서의 성품을 확실히 아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며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한 개체이시며 가장 높고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 테일러는 요셉 스미스가 이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고 지적으로 수준이 낮은 무지한 자들의 기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뛰어난 언변을 가진 남녀의 기도, 특히 남자들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도를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그를 지으신 이가 마치 그 곁에 있어 다정한 아버지가 어린 아이의 슬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절실한 기도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배우지 못하였으나 그의 기도는 그에게 길을 잃고 죄에 빠져 있는 자라고 비난을 퍼붓던 자들을 위한 기도였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눈을 열어 올바로 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기도는 나의 낮은 식견으로 하늘의 학식과 아름다운 말씨를 취한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없었고 열성으로 음성을 높힌 일도 없었으며 오직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단순한 대화만이 있었습니다. 만일 장막이 걸히면 내가 이제까지 본 하나님의 종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종과 마주 서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다니엘 테일러 회고록” 청소년 인스트라터 27 : 127)

예언자에게 있었던 일이 어떻게 우리의 경우와 일치하며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예언자가 드린 기도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기도는 간단했습니까 혹은 길었습니까? 당시 14세에 개종한 메리 엘리자베스 톨린스 라이트너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예언자의 집에 와서 예언자의 영광에 찬 성교를 듣고 그 때 예언자의 얼굴이 밝게 빛나며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는 간증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요셉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모두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으며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 같았다. 기도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몇사람이 일어나 잠시 쉬고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엘리자베스 알 라이트너의 일기, 브리검 영 대학교 특별 수집물, 3페이지.)

한번은 어느 날 커틀랜드에 있는 그의 집에서 식탁에 음식이 너무 적게 차려진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케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청하옵건대 더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조금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한 남자가 햄과 밀가루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기뻐했습니다. “여보, 그것 보오. 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알고 있었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인스트라터 17 : 172) 이것은 짧은 기도였습니다.

“나는 그가 그의 일기에  
‘나를 강을 건네주느라고  
노를 저어 손이 부르튼  
어느 어느 형제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쓴 기도를 읽고  
울었습니다.”

요약하면 어떤 기도는 길어야 하고 어떤 기도는 짧아야 합니다.

예언자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는 거의 대부분 “우리 아버지” 또는 “아버지”, “주님”이라고 불렀으며 그 명칭에 형용사나 다른 화려한 형용사를 잘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같은 형용사가 적합할 수도 있지만 그는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른 많은 면에서도 그러하듯이 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와 많이 닮았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방앗간에 가려는데 말 한 필만 빌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듯이 솔직하고 단순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십시오.”(청소년 인스트라터 27 : 151—2) 기도는 직접적이고 친밀하며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기도가 하나의 의식이 될 때와 같은 거룩한 어떤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커틀랜드 신전 헌납식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교리와 성약 109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는 그 후의 모든 헌납 기도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할 말을 알려 주시어 그대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언자는(제이 루벤 클라크 2세 부대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장 자주 기도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무엇을 위해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임을 모범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60년 10월, 90페이지)



최소한 기도하는 과정의 반은 우리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데 쏟아 쏟은 경건인이 되며 언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만물이 다 저에게 예속”될 것이라는 현대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는] 만물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란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시는 생명이나 빛이나 영이나 권세”로 정의됩니다.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니, 무릇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요”(교성 50 : 27—30참조)

예언자가 기도는 했지만 알지 못했거나 인도를 구했으나 거절당한 일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도 때로는 헛된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아들 요셉아, 만일 그때가 85세까지 살면 인자의 얼굴을 보리라. 그러므로 이로써 만족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성130 : 15) 그래서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믿기는 인자의 오심이 그때보다 일찍 임하지는 아니하리라”(교성130 : 17)

분명히 주님은 그 예언자(또는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내일 있을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해 줍니다. 주님은 거듭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제22 : 20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벗나무를 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긴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고 살며 부질없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탐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이제 5년 후면 세상이 폭발될텐데 학교에는 무엇하러 잡니까?”라고 합니다. 이것은 천박한 생각이며 현실 도피주의자의 변입니다. 한번은 또 예언자가 그의 성도들이 미주우리주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탄에 젖은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게 가르쳐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여러번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틴 해리스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는 원고 봉치를 빌려 주도록 허락해 달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세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예언자는 이에 이렇게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농장을 저장잡혔습니다. 아내가 그를 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허락을 얻었습니다. 스미스의 어머니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 후 마틴이 스미스의 집에 와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에서 머뭇거리며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본 예언자는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며 불길한 생각이 들어 밖으로 뛰어나가 “마틴, 원고지를 잃은 게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예언자는 괴로와 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정죄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 너는.....그 일에 부름을 받느니라”(교성3 : 10)란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마음에 위로를 받아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날의 계시에 대해 “그 명령은 나에게 용기와 영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실 때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가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2 : 270) 그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어려운 방법으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예언자는 가족 기도를 했습니까? 이전에 예언자나 그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는 어느 형제가 예언자의 집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막 예언자의 집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에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머뭇거렸습니다. 엠마 자매는 가족 예배와 비슷한 모임에서 가족과 손님이 부르는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방문자는 숨 소리를 죽이고 예언자가 하는 “해의 영광의 행복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요셉은 아침, 낮, 저녁으로 가족과 더불어 세번 기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예언자는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우리가 “주님의 집을 향해 하루에 세번씩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적이 있습니다. (교회사, 3 : 391)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전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우리가 주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보는 성스러운 방법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신전을 헌납하면서 특별한 기도, 즉 성도들이 유혹이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신전에서 맺은 약속을 기억하여 그들이 신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아 들이시도록 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한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덕과

**“여러분과 나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의 대 행렬에 끼여  
기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이 특권이 주어집니다.”**

거룩함을 행동으로 보이고 “어떠한 축복을 받을지라도 영으로 이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성 46 : 32)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오직 감사와 찬양만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만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울 때 “영화롭게”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성 78 : 19) 요셉은 주님이나 이웃으로부터 받은 지극히 작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천부의 뛰어난 마음씨를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그의 일기에, “나를 강을 건너 주느라고 노를 저어 손이 부르든 어느 어느 형제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쓴 기도를 읽고 울었습니다. 지극히 적은 은혜라 해도 그는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기록이 교리와 성약에 여덟 군데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만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뜻이라면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없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몸가짐을 하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즉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선교 여행 중에 요셉 스미스가 쓴 “오 주여, 우리의 간증을 그들의 마음에 인봉해 주소서”, “오 주여 나의 가족을 위로해 주소서”라는 일기는 하나의 연속된 기도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생의 절정은 “오 주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말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언자는 신약전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의 구세주께서  
고통의 쓴 대가를 치루고  
우리를 도우려 했음에도  
우리가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말하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 : 26) 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성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노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78페이지) 우리가 성령의 분별력을 확신할 때 형식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게 되며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 드러내는 데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노력을 안전하게 통변하여 전합니다. 노력은 탄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낙담과 실망 가운데 탄식하게 되며 그리하여 더욱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노력은 전진을 뜻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으나 노력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일 때 성령은 그것을 완전히 해석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어떤 권능으로도 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응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큰 확신과 큰 자유는 우리가 영을 믿을 때에 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에 몰두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리없이 하는 기도에도 심지어는 마음이 한 곳에 집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에도 유익한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은 그들이 감동을 받는 곳을 향하여 가게 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집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언자가 신권 정원회 회원들에게 가르친 내용에 보면 힘찬 기도에도 있어서 이러한 요소와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관해 특기할 만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각 정원회[대제사, 칠십인, 장로, 감독, 십이사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반찬에 그들이 이를 수 있도록 하려고 얼마 동안 노력했습니다”(교회사 2 : 391) 이것은 커틀랜드 신전에서 정원회가 행한 특별한 하나의 노력 곧 “어떤 이야기나 혼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기도를 하며 보면 첫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엄숙하고 조용하며 어떠한 속삭이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귀에 들리는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그돈 부대관장의 인봉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환언하면 한 사람이 한 무리와 더불어 그들을 대표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든 정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엄숙히 호산나를 외치며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신전 헌납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호산나의 외침”은 이같이 다른 거룩한 개인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세 번 외치고 또 세 번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모두 자리에 앉아 조용한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었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라도 예언을 받거나 시현을 보게 되면 일어나 이야기하여 모두 가르침을 받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계시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나 은밀한 기도에도 이러한 자세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집중입니다. 혼란이 아닌 침묵의 집중이라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와 요구에 대한 영혼의 외침, 곧 엄숙한 나타내 보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느끼며 우리의 뜻을 표현하며 사생활에서는 어떤 것이 영에 의해 오는가를 알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개정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칠십인 정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다. 많은 형제가 일어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며 뼈 속에 불이 이는 듯하여 도저히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호산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간증했다.”(교회사, 2 : 392)

또 예언자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원회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영으로 충만한 채 집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문을 닫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나의 영혼은 그 밤의 조용한 어  
 두움을 통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호산나를 외쳤다. 잠으  
 로 눈이 감겼을 때 주님의 시현이 나에게 주어져 그의 영  
 광이 나를 둘러쌌다.”(교회사, 2 : 387)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  
 당치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언자는 아내 엠마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생애의 지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슬피하면서 나는 나의 어리석음에 대  
 해 비탄의 눈물을 흘리오.” 여러분이 예언자에 대해 잘 연  
 구해 보면 모든 예언자는 우리의 위대한 다른 사람들과 마  
 찬가지로 이러한 암흑의 밤과 또 이와 똑같은 투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니파이는 그의 첫번째 책을,  
 그가 두려워 하거나 좌절된 적이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  
 할 정도로 확고한 신앙을 갖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쓴 시에서 “나를 비탄케 하는도다... 내가 기뻐하고자  
 할 때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신음하게 되는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이4 : 17-19 참조) 그리고 “오 주여,  
 나를 잡아 주소서”라고 큰 권능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이4  
 : 33)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같이 영적으로 높고 낮  
 은 상태를 겪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  
 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  
 겠습니까?

예언자가 시현을 통해 최소한 9명의 사도가 외국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영국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들이 마  
 지막으로 간 곳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신도 신지 않  
 고 배를 맞으면서 남루한 옷을 걸치고 용기를 잃은 채 등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위 공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팔을 뻗쳐 그들을 들어 올리하고자 하셨  
 다는 것을 예언자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보  
 지 못했습니다. 구세주는 그들을 내려다 보시고는 우셨습  
 니다. 우리는 요셉이 슬피 울면서 이 시현의 이야기를 하  
 는 것을 들은 형제 가운데 있던 두 사람으로부터 그 이  
 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것처럼 슬피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어  
 떤 일이 일어나며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걱정하는 바를  
 알고 계시며 아버지의 가족이 모두 담대히 그에게로 나아

오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서 가장 큰 비극은 우리의 구세주께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모15 : 9 : 엘7 : 13 참조) 고통의 쓴 대가를 치루고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손을 내밀 준비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구  
 세주를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려다 보지 않고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특권을 얻는데 다소 합  
 당치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언제나 합당하게 해 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것을  
 가르치고 몸소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  
 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마땅히 그래  
 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문을 닫는 일은 없습니  
 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를 부르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생명이 있는 숨  
 쉬는 기도, 즉 손에 닿는 가까운 곳에 삶을 변화시키는 기  
 도의 모범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더 나아가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관 이상의 것이라고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는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를 통해 장막을 뚫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생기있는 손을  
 잡게 하는 하나의 계획이요 형식입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 물몬 일지

## 캐시가 왜 나를 답지 않았을까

제인 피 코베이

내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고전 한 권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마지막 장을 읽고 나서는 울기까지 했다. 나는 그 책을 줄곧 읽으며 자라 왔다. 나는 이 다음에 그 책을 나의 딸에게 주기 위해 여러 해 동안을 소중히 보관했다. 캐시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책을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 캐시는 그 선물을 매우 감사하게 여겼다. 그 책을 선물로 받은 기쁨으로 당장 처음부터 두 장을 읽더니 곧 그 책을 선반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책을 펴보는 일이 없었다. 나는 매우 실망하였다.

무언가 나는 캐시가 나를 답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소녀 시절에 즐겨 읽은 책을 그녀도 즐겨 읽고 내가 느낀 바를 그녀도 느끼리라고 생각해 왔다. 여러 해가 지나 지금 나에게서는 딸이 넷이다. 그 중에 나를 답은 아이는 하나도 없다. 지금은 그러한 것을 기쁘게 받아 들이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캐시는 귀엽고 활발하며 잘 웃고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라고 그녀의 선생님들이 나에게 말하곤 했다. 친구 애들은 “캐시하고 있으면 재미있어요”라고 한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생활을 즐겁게 해 주고 어디서나 웃기를 잘 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라고 말했다.

나는 언젠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정말 힘들어요.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못배기고 아무리 놀아도 끝이 없고 떠들고 웃고 장난을 하는 데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애처럼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소녀 시절에 나의 유일한 기쁨은 독서였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깊숙히 실망의 감정을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캐시는 나에게 방해꾼이었으며 나는 그 점을 싫어했다.

말하지 않는 그러한 감정은 한 아이에게 빨리, 그리고 깊이 전달된다. 나는 캐시가 그러한 나의 감정을 이미 느꼈거나 조만간 느끼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자비롭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깊이 번민했다. 나는 실망이 부질없는 것인 줄 알고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난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잠들어 있었으며 집은 어둠과 정적에 싸여 있었다. 나는 혼자 하늘에 제신 나의 아버지께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 후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내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뒤에 나는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고는 내가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깨어 있었다. 잠시 내 마음을 재빨리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영상에서 나는 캐시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성인 여인으로서 팔짱을 끼고 서로 쳐다 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자매 이상의 관계였다. 나는 내 여동생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 동생이 나를 답아 주기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캐시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장 친한 모녀요 친구로 있을 미래의 모습도 보았다.

“어찌 너는 감히 네 성품을 딸에게 강요하고 있느냐? 서로 다른 것을 기뻐하라!”라는 말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그 광경은 불과 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빛, 그 깨달음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나는 다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긴다. 것처럼 노력했으나 어찌 할 수 없었던 마음의 변화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가져다 주셨다.

제인 패리쉬 코베이, 딸 여덟을 가진 주부, 현재 남편 존 엠 알 코베이가 관리하는 벨버른 호주 선교부에서 봉사함.

잠시 내 마음은 재빨리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영상에서 나는 캐시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성인 여인으로서 팔짱을 끼고 서로 쳐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 금식하라는 속삭임

프랭크 아이들로트

나는 어느 일요일 저녁 노변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금식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금식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 속삭임을 흘려 넘겼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나는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깨어 다시 금식하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그대로 넘겨 버릴 수가 없어 금식을 시작했다.

그 날 사무실에서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이 내게 내일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 하지 말고 침착하라고 했다. 그 일은 나에게 오히려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속삭임이었다. 그날 여러번 나는 그같은 속삭임을 들었다. 나는 내가 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산만했다. 내가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자격 문제는 자주 이야기되었으며 내 직책의 안전 문제도 여러번 거론되었었다. 나는 진귀한 서적과 원고를 담당하는 사서로서의 나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 직업을 잃는다는 일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령의 소리를 부정할 길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자리를 비워 두고 한 시간 동안이나 상사의 방에 불려가 이야기를 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일을 맡기겠노라고 하면서 2주의 여유를 주었다. 그는 내가 항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미 나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다.

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당장 해고는 시킬 수가 없었으며 그래서 다른 부서로 전직되었으나 내가 맡아 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 상사들은 내가 그러한 굴욕을 참기보다는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바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룩한 지시를 기억하면서, 가장 하급 관리도 나보다는 유용한 고용인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다른 일자리를 구해 보려 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과연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것인가?” 나는 매일 기도로 새 직장을 간구했다.

나는 교성 21권에 나오는 리버티 감옥에서의 예언자 요셉의 간구를 읽고 위안을 얻었다. 나는 성신의 인도를 믿는 신앙을 배우고 있었으며 성령을 통해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4월 어느 날 나는 그곳 대학의 어느 영향력 있는 분을 찾아 가라는 영감을 받았다. 그는 나를 친절히 맞아 주었으며 내가 직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나를 고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나에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자리가 날 때까지 현재의 직장에 그대로 있으라고 했다. 나의 희망은 부풀어 올랐다.

나는 그에게서 곧 소식이 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나

의 신앙의 시험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무런 소식도 없이 5개월이 지나 갔다. 나는 직장 도쳐실 서고에서 기도를 하여 위로를 구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가는 와드의 감독단이 개편되어 내가 제2보좌로 유임되면서 밝은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얼마 후 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시련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니 희망을 가지라는 보혜사의 속삭임을 들었다.

8월 말에 나는 친구와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으나 일 자리는 얻을 수가 없었다. 이를 후에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에서 그는 나를 그의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이 일을 감사하고 축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했다. 나는 그 일자리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일어났다. 그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내가 일하게 될 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의 시련과 영의 인도를 돌이켜 생각해 보고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의 가치를 나에게 가르쳐 준 시련을 이제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프랭크 아이들로트, 작가, 캔사스시티 미주우리 스테이크 로렌스 와드에서 스테이크 선교사 및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함.

##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했다

머나 베후닌

인디안 소년을 말일성도 가정에서 학교에 다닐 동안 거하게 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 집에 열 살된 웨인을 데려온 지 일주일도 지난 후의 일이다. 그는 명랑하고 잘 생긴 소년이었지만 자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려 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자주 싸웠으며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학교에서 그의 담임 선생님께서부터 전화가 왔다. 그것은 웨인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린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담임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까지도 존경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로 마음이 크게 상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할 이야기를 혼자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버릇은 떡잎에서부터 길러야 돼.” 나는 혼자 말했다.

실상가상으로 웨인은 이웃 아이와 싸우느라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늦어지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두 아이의 싸움은 우리집 마당에 와서까지 그치지 않았다. 싸움은 매우 치열했다. 나는 그 싸움을 잠시 쳐다 보다가는 그것이 매우 격렬하다는 것을 깨닫고 현관으로 나가 웨인을 집으로 불러 들었다.

그는 나의 말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계속 이웃 아이와 맞붙어 싸웠다. 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웨인에게 집으로 들어 오라고 명령했다. 너무나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태로 그 문제를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어 웨인을 제 방으로 보내 책을 읽게 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나는 침실로 들어 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으며 성령을 통해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자 따스하고 조용한 느낌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감정은 머리에서 시작하여 따스하게 발끝까지 번져갔다.

웨인의 방 문을 열어 보니 그는 침대 한 쪽에 걸터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내 마음에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갔다. 그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무척 어울리지 않게 보였다. 그는 예전처럼 밖에서 뛰어노는 그런 환경에나 어울리는 아이였다. 순간적으로 나의 마음은 이 외로운 어린 아이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찼다. 그는 그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생소한 세계에서 생소한 규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내버려진 아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도 그들처럼 착한 소년이란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나는 그의 옆에 가서 앉았다. 내가 그에게 건넨 첫 말에는 나도 놀랐다. “웨인 너한테 그렇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담임 선생님께서 온 전화 이야기를 한 뒤 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이야기했으며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기 전에 기대했던 그런 어조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영적인 경험이었으며 그 일로 인해 웨인과 나는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감사한다.

머나 티 베후닌, 가정 주부, 전직 교사, 현재 샌디 유타 웨스트 스테이크 초등학교 보좌로 있으며 샌디 제13와드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 관리자로 봉사하고 있다.

### 29페이지의 계속입니다

때문에 주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가장 훌륭해 보이는 어떠한 생각보다도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업은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업과 가사와 상호부조회와 모든 가치 있는 일에서 합당한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감에 의해, 또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살아 계신 예언자들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예언자들을 통해 이 교회 곧 그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연구와 기도와 경청에 의한 순종과 사랑으로 최상의 것을 추구함에 있어 올바른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제너스 알 캐논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교육 고문이다.

# 최상의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

제너스 알 캐논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훌륭할 것을 바랍니다. 교회의 여성 지도자인 우리가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훌륭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려는 부름을 받았읍니다.

어떠한 훌륭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우리 대부분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의 선택 문제 뿐만 아니라 선과 선 가운데서까지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13조) 그러나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전3:1)

“해야 할 일이라면 잘 해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는 어떤 것들은 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해야 할 가치밖엔 없는 것도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열쇠입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본적인 우선 순위를 무시했던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첫 사랑이요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 중 가장 교훈적인 이야기의 하나로 여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윗과 미갈의 사랑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궁성에서 젊은 다윗을 보고 벌써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삼상18:28, 29)

사울은 요나단의 중재로 다윗에게 미갈을 아내로



맞도록 했습니다. 사울이 노여워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남편에게 알려 주고 그가 피하도록 도운 것은 역시 미갈이었습니다. 여러 해 뒤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사울이 죽자 다윗은 그의 아내 미갈을 데려 올 것을 명해 그들은 다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 갔습니다. 궤를 운반하는 길에는 행진과 음악과 춤이 따른 참으로 기쁜 축제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삼하6:14)라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예복이었습니다. 미갈이 창 밖으로 내다보니 에봇을 입고 행렬의 앞에서 춤을 추는 남편의 옷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제집중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삼하6:20) 그것은 승리로 의기양양하고 성급했던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갈은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은 위엄있게 행동하며 의복과 행동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다윗은 심히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삼하6:21)

미갈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슬픈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삼하6:23)

미갈이 따스함과 사랑으로 남편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만일 개인 관계에서 필요한 우선 순위를 알았더라면 기다리면서 사랑에 찬 기술과 모범으로 다윗의 태도를 고쳐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더 성공적인 인간 관계를 갖도록 하십시오.

미갈의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그녀의 아버지, 사울의 이야기는 우선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설명해 줍니다.

주님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자기 나를 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의 생각이 최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만큼의 겸손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양과 소를 다 죽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살려 두었습니다. 사울은 어릴 때 목동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잘 볼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백성들은 아말렉 사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목동은 살려 주기를 원했으며 이에 사울은 통치자는 그의 백성의 원을 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 있는 예언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님의 말씀에 청중치 않은 책임을 추궁하자 사울은 제일 좋은 가축을 살려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 훌륭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럴듯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15:22)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28페이지 왼쪽단 아래에 계속됩니다



#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함

서울 선교부장 유진 피 털

때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일에 그토록 시간을 쓰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노력의 결과로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나를 생각하기 전에 주어진 일을 실행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노력의 댓가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순수한 희생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이 인간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 대회 때 나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을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김볼 대관장님이 교회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랑의 빛을 발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그분의 행동에서 겸손을 보았고, 이웃에 대해 갖는 지대한 관심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김볼 대관장님이 그의 비서인 아서 헤이콕 형제와 일정에 관해 상의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연세에 것처럼 바쁜 일정으로 일을 수행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김볼 자매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관장님께서 정해진 일정 이외에도 틈을 내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볼 자매님께서 많은 사람이 평소에 그의 집을 찾고 있으며 대관장님은 바쁜 하루의 일정으로 지친 몸으로도 이들을 일일이 맞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관장님은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들어 주십니다.

나는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님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서울 스테이크가 조직된 이후 본부 대회에 참석한 많은 한국과 일본의 교회 지도자가 김볼 대관장님 댁에 초청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청 받은 사람들은 모두 김볼 대관장님이 직접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예언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의 한 가지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

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예언자가 보여 주신 모범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세우신 삶의 표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동기가 사랑 위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봉사가 수반되는 개념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전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 행동이 수반될 때 진정한 사랑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용산 군인 지부에 폴 질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형제가 있습니다. 질 형제는 아내와 세 자녀와 같이 한국에서 1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는 우연하게도 용산 지부장인 산체즈 형제에게 자기가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즈 형제는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었고, 질 형제는 같이 근무하는 8군 동료들이 이사를 도우러 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질 형제가 도와 줄 사람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산체즈 형제는 이사에 대해서 잊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몇몇 신권 지도자들이 비가 오는 다음 토요일 아침에 이사를 도울 수 있게 주선하였습니다. 질 형제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동료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요일날 질 형제는 간증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 신권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 보여준 사랑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교회 회원으로서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의 사랑이 봉사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러한 지침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 원수의 권세를  
막아 주시도록 기도하며,  
모든 의의 원수,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간구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

(엘마서 34:20~23, 26~27)

